

[ 시티 & 피쳐 ]

■ '독서의 계절' 무등도서관 가보니...



'놀토'(노는 토요일)인 지난 23일 오후, 광주시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어린이 열람실을 찾은 가족들이 책을 읽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놀토'엔 가족과 함께 책읽기 도서관, 휴식·취미공간으로

주부 박현주(34·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주말이면 아들 성민(6)이와 딸 나영(4)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간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산만한 성격을 고쳐보려는 생각에서였다. 처음에는 책을 잘 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도서관에 가자'며 손을 잡아끈다고 했다. 박씨는 "자주 도서관에 다니다 보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진 것 같다"고 했다.

'놀토'(노는 토요일)인 지난 23일 오후, 광주시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1층 어린이열람실, 79평 공간이 아이들로 가득 찼다. 바닥에 엎드려 책을 보는가 하면 아예 드러눕는 아이도 있었다.

덕분에 대출·반납실은 바빠졌다. 책을 빌리려는 아이들과 반납하는 엄마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도서관에 다

하루 1,800여명 1,618권 대출

책 읽고 토론하고 영화도 관람

길게 줄을 섰다. 엄마들의 손과 어깨에는 수십 권의 책이 담긴 가방이 들렸다. 본래 한 사람당 최대 5권 까지 빌릴 수 있지만, 어린이열람실은 본인이 아니라도 가족들 회원권으로도 책을 빌릴 수 있기 때문. 직원 전현숙(52)씨는 "3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지만, 주말이면 이용객 수가 많아 일손이 딸린다"고 말했다.

이날 도서관에는 약 1천800명이 방문, 687명이 1천618권의 책을 빌려 갔다. 대출 자료 가운데는 일 반이 43.7%(707권)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초등 43%(696권), 주부 7.1%(115권)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 최대 대출 도서**

**어린이** (기간 7.20~8.29)

1. 아들이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지은이 포도나무·현안출판사)
2. 메이플스토리, 13 (지은이 송도수·서울출판사)
3.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지은이 고정욱·서울출판사)
4. 서용오, 1 (지은이 김명찬·지식공작소)
5. 도시탈출 전원생활일기, 2 (지은이 박명준·대교출판)

**인생**

1. 식객 (지은이 최영만·김영사)
2. 사신 (지은이 이경숙·나래)
3. 만화 사이언스 (지은이 박우익·북박스)
4. 사람이 될까 (지은이 가루리 미즈오·작품)
5. 배려 (지은이 한상복·위즈덤 하우스)

이용객 수도 지난달부터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6월과 7월 이용객은 3만명 수준이었지만, 8월에는 5만명을 웃돌았다. 9월도 하루 평균 3천여 권의 책을 이용하는 등 8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무등도서관 조정희(50) 문헌정보과장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족과 함께 도서관에 오는 사람이 많아졌다"면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을 뛰어넘어 휴식공간·취미생활공간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공항 '개항공항' 지정될 듯

박광태 시장 '시설 확충 8억 지원' 공항공사서 동의땀 2008년 가능

광주공항이 국제선 여객기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개항공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우호교류협력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중인 박광태 시장은 26일 "광주공항이 빠른 시일 내에 개항공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을 확충하는데 광주시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선양시에서 현지 교민, 기업인 등과 만나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

혔다. 앞서 엔타이시와 선양시, 현지 교민, 기업인 등은 박 시장에게 광주공항의 개항공항 지정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국제선 입국장과 출국장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등 개항 공항 지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8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가 광주시의 이같은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이르면 2008년에는 개항공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항공사는 그동안 시설 확장에 따른 예산 8억여원의 확보가 어려운데

다 공사기간(14개월) 등을 감안할 때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맞물려 증폭투자 논란을 빚을 수 있다며 개항공항 지정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광주시는 광주공항이 개항공항으로 지정될 경우 현재 주 22편의 국제선 전세기기가 60여편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광주·전남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은 중국의 여러 도시들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해외여행객이 연 5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광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또 예산부족으로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월대보름 축제도 광주시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

▲개항공항=내·외국적 항공기가 상시 출입하는 공항. 개항공항으로 지정되면 CIQ(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검역소)가 상주해 사실상 국제공항이 된다. 지정 요건은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매주 6회 이상 입항하면 된다. (광주공항은 매주 왕복 22편) 또 매년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출항 수수로 납부없이 자유롭게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으며 세계항공지도에 '광주'라는 이름이 실리게 된다.

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금남지구대, 독거노인에 햅쌀 전달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대장 김인동)는 26일 '2005년 우수지구대 선정' 상금 100만원으로 햅쌀을 구입, 관내 독거노인 14명에게 전달했다. <금남지구대 제공>

민주주의의 정당 유지 추진 북구청, 지원협의회 개최

광주시 북구가 건국이후 민주주의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관인 (가칭)한국민주주의의 정당 유지에 나선다.

북구청은 이를 위해 27일 구청 상 황실에서 '(가칭)한국민주주의의 정당 유지추진 지원협의회'를 개최한다.

북구청장, 북구의회 의장, 광주 동부교육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 14명으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는 '기념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영상물을 관람한 뒤 향후 운영방안, 중점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 남구청, 다음달 2일부터

광주시 남구청이 그동안 격일제로 수거하던 음식물 쓰레기를 다음달 2일부터 매일 수거하기로 했다.

남구청은 26일 "정결한 위생환경과 악취방지를 위해 단독주택과 상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9월 한 달 동안 월산4, 5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데 대한 주민 호응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16개동 전 지역에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운행대수도 기존 1일 5대에서 8대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상·하수도, 전기 공사 등 도로기반 시설물 통합관리

상·하수도, 전기 공사 등 땅속을 파고 시설하는 각종 도로기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통합 관리된다.

광주시는 26일 상·하수도와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등 7대 지하 시설물 정보의 통합 관리와 공동 활용을 위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한전, KT, 해양도시가스 등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 등과 함께 통합 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토대로 2008년부터는 도로를 파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조정과 협의, 허가 등의 업무 처리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하는 원스

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시는 이를 위해 3억5천만 원을 들여 통합관리 서버를 시 분청에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시행자나 시공업체가 도로 굴착을 위해 최소 7차례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했던 것을 1~2회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나 구청 등 지자체도 도로굴착 심의와 결과 통보, 허가, 공사현황 관리 등 각종 업무를 전자결재·문서로 처리, 행정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따로따로 공사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생활안내		신 고	
<b>교통안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위원회 상설상담소 671-4050</li> <li>●24시간 청소년상담: 광주 YWCA 527-0011</li> <li>●국번없이 1388</li> <li>●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li> <li>●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li> <li>●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고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 국번없이 112</li> <li>●전남경찰청: 226-0112</li> <li>●광주지검: 233-2828</li> <li>●사이버테러: 02118</li> <li>●가정폭력: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li> <li>●여자형사기동대: 363-0155</li> <li>●광주 여성지원화: 363-7739</li> <li>●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li> <li>●광주이동핵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li> <li>●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li> </ul>	
<b>상 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직번호(27일): 232-0050</li> <li>●법무사회 법률상담(27일): 239-1809</li> </ul>		

마음과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 한운산복분자요

**산매**

한운산복분자요